



· 작품명 : 그리움 · 김형자 작가

# 제1회 동탄2동 주민총회 개최

##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개발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공론장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탄2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총회가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외부 축하공연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강사와 수강생의 다이어트 댄스, 오카리나동아리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주민자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민총회는 지난여름 동탄2동 자치계획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친해지는 아이스브레이킹과 지역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동네 한 바퀴, 마을지도 맵핑, 분과별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논의됐던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의견들을 마을 의제별로 수합했다.

시민교육프로그램	내용
참봉사	동탄2동 주민대상 소통 프로그램 운영 예시) 행정다리파, 순무작, 봄꽃자료, 예술교육 등
탄묘축제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에게 더불어 함께하며, 꽃벗을 통해 따뜻한 동탄2동을 만들어가는 이웃 돌보기-
노작벗꽃축제	자생특화축제를 통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따르릉나눔	노작마을의 빛꽃을 품은 마을에서 소규모 주민축제를 통한 주민 화합의 장
우리 마을 해설사	어르신 밭벗, 안부인사 어르신과 함께하는 삶의 질 개선
환경사랑	우리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고 마을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 바로 알리기 예) 족집10동사, 탄묘유적지
소담소식지	나부터 시작하는 제로웨이스트 재활용 인식개선 확산 운동

주제: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을 동탄2동 주민자치회

주민들의 의견들로 인해 18개의 의제가 나왔다. 의제별로 나누고 주민총회 공고를 통해 홍보하고 탄묘축제와 동탄농협 하나로마트,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시작했다. 동탄2동 주민자치회 교육프로그램분과위원회와 나눔복지분과위원회는 11월 18일 현장투표를 진행하였고,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청소년홍보분과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회는 11월 19일에 현장투표를 진행하며 동탄2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홍보하였다.



이번 주민총회는 동탄 1기 신도시에서는 2022년 주민자치회로 처음 전환된 동탄2동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선정된 의제는 예산 범위에 따라 2023년 실행될 예정이다.



동탄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항상 가까이 있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씨앗이다. 동탄2동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로서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학 지원관



# 제6회 탄요축제

청명한 가을 날씨에 무르익은 오곡과 함께 단풍도 절정이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축제가 방방곡곡에서 봇물 터지듯 터졌다.  
동탄2동도 큰 축제 한마당인 탄요축제가 성대히 펼쳐졌다.



탄요 축제는 동탄 1신도시 택지 개발 중에 발견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인 '탄요'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탄요'는 화성시 향토 문화재(기념물) 제9호로 숯가마를 뜻한다. 삼국시대 때 숯을 구워내던 가마시설인 '탄요'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탄요 유적공원의 탄요 조형물



탄요 유적공원의 탄요

이를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 동탄2동에서는 탄요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올해는 22년 10월 29일 솔빛유치원 옆 공터에서 11시부터 18시까지 축제가 열렸다. 식전 공연이 11시 20분부터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루 상가를 돌아 행사장까지 축제를 알리는 농악 길놀이가 열렸다. 축제 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부 공연은 동탄2동 풍물 (상쇠 김주순: 12:00~12:20), 한울 태권도 시범(12:20~12:40)이 있었고, 이어서 13시 정각에 개회식 선언, 국민의례 후 내빈 소개와 축사가 있었다.



이원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및 관내 단체장 및 마을 유지들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축제를 한층 더 빛내 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축제장으로 가는 주민들이 줄을 잇는다. 축제의 분위기와 열기가 달아오른다. 축제장 입구 솔빛 산책로에는 아나바다 장터와 플리마켓이 열렸다. 나눔복지분과에서 열심히 아나바다 참여자들을 모집한 덕분에 아나바다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플리마켓과 아나바다 장터가 축제장 가는 길을 한결 더 즐겁게 해줬다.



축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외부 공연으로 점점 열기가 가득 찼다.



## 숯부작 경진대회, 탄요웹툰 공모전

숯부작과 웹툰은 대회 참여자를 사전에 접수하여 축제 당일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 심사원들이 작품들을 심사하고 당선작들을 그날 발표했다.



부스는 풍선아트, 코딩 로봇 체험, 숯부작, 유적지 돌아보기, 전래놀이, 예그리나 (주변환경을내몸과같이) 등 많은 체험행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지막 공연은 '다함께 축제'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 공연하시는 분, 행사장을 찾아주신 주민 모두 함께 춤을 추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공연의 장이었다.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 행사가 되었다. 축제 장 풍경의 이모저모를 랜덤으로 올려보았다. 매년 이장소에서 축제를 열어왔던 탄요축제는 내년 중앙도서관 착공으로 인해 솔빛유치원 옆 동탄 중앙도서관 부지(반송동 139)에서 열리는 마지막 축제였다. 내년 탄요축제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동탄 1신도시에 체육공원 1호 추진 2023년 7월 체육관 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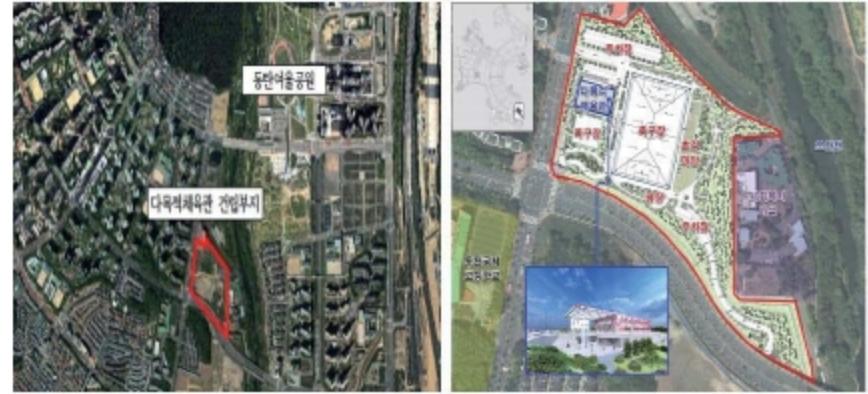
화성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동탄2동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반송동 569-2번지 일원에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온다.

자연적 입지도 좋고 향후 트램도 계획되어 있다. 제1호 체육공원에 다목적체육관, 광장, 축구장, 족구장 등은 46억 5백만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50,613m<sup>2</sup> 규모로 오는 2023년 7월에 배드민턴장을 우선 개관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동탄 2동 다목적체육관에는 4면의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탁구장, 샤워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그동안 가까운 곳에 마땅한 생활체육시설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체육공원 1호가 건립되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지역 요구가 반영되어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준숙 기자



##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다녀오다.



숲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 가을이다. 형형색색으로 다채롭게 물든 단풍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좋은 계절에 부산 벡스코에서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동탄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며 우리 마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0일에 제 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주민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사) 열린 사회시민 연합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행사이다. 이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79개 지

자체가 참여하였고 현장 부스 60개를 설치, 운영하였다.

반반은 것은 화성시 반월동 주민자치회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월동 주민자치회는 반월동 주민자치회,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리고 청소년 휴카페 등을 통해 마을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동탄2동 주민자치회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보고 배울 점과 고쳐 나가야 할 점 등을 함께 논의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동탄 2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이준숙 기자

## 간호조무사 재취업 성공기

가을이 깊어져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노랗고 빨간 단풍잎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50을 넘긴 나이를 계절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가을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내로서 꽃피운 봄과 엄마로서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나를 찾아보면 어떨까?

40대 후반의 나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하여 의료기관 취업에 성공한 신영희 님과 신동탄 간호학원 이용희 원장을 만나 주부 재취업 성공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용희  
(신동탄 간호학원장) / 이하이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는  
이용희입니다.



• 신영희  
(48세 간호조무사) / 이하신  
안녕하세요, 리본산부인과  
근무하고 있는 신입 간호조무사  
신영희입니다.

### Q. 간호조무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 아이들 키우며 엄마로서 최선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상담 예약을 했어요. 간호조무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원장님 설명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 간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Q.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이론교육740시간과 현장실습 교육 780시간 총 1,5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합니다. 매년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총 100문항 중 60점 이상 득점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 Q. 간호조무사 과정 중에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신) 힘들었던 점보다 즐거웠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고 나이 구별 없이 훈련생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를 응원하며 공부했습니다. 현장실습 교육 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병원 업무를 배웠습니다.

### Q.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신) 두 딸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딸들과 대화도 더 많이 하였고, 집안일도 가족들이 역할 분담을 잘해주었어요. 또, 학원 원장님들의 끝없는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시작하는 훈련생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과정을 마친 수료생 100%가 만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 Q.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신) 간호조무사는 일자리가 많아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업자가 될 일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고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도전은 나 자신을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 Q.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산후조리원 등 취업 및 진출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을 수료생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간호술기 중 주사 투약 기술 등을 세심하게 지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갈수록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청년실업은 심각하고, 가정경제의 작은 틈새라도 메우려고 노력하는 주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부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혼편이다.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간호조무사는 재취업을 고려하는 주부가 사회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직종으로 생각된다. 육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일을 해 보려는 주부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쉰 살도 예순 살도 청춘이며 재취업 여건이 마련될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현재와 다른 나를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기를 제안해본다.

정희영 기자

## 2022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 사끌벅적 화합의 축제 성료

2022년 10월 22일~23일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개막식은 10월 23일 08시 10분 ‘화성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화성시 28개 읍면동 관계자, 선수단, 응원단, 그리고 화성시 7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여 화합의 잔치를 성황리에 마쳤다.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배드민턴, 볼링, 비둘, 족구,

게이트볼, 한궁 총 13개 종목의 본경기와 농악 경연, 휠체어 육상 2개 기타 종목으로 치러졌다. 봉답읍이 종합 우승하였으며 2등은 팔탄면, 3등은 향남읍이 차지했다.

보조경기장 옆 각 부스에서는 지역별, 사회단체별 마련한 각종 체험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 시민들은 오랜만에 축제를 즐겼다.

돼지 열병과 코로나로 취소되어 4년 만에 열린 대회라서 더욱 뜻깊은 대회였다.

정명근 시장 인사말에서는 화성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나친 경쟁을 뒤로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자고 하였으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성장을 위해 생활체육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화려한 퍼포먼스 입장식

입장식은 28개 읍면동별로 각 지역 특색, 문화에 맞춰 본부석을 지나면서 퍼포먼스를 하였다. 특히 동탄 2동 입장식 때 ‘육탄 10용사’ 퍼포먼스 재현은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육탄 10용사는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에서 자폭 공격을 하여 조선인민군 육군 특화점을 폭파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동탄 2동에 10용사 공원이 조성된 이유는 10용사 중 2분(김종해-화성 반송, 윤승원-화성 안녕)이 화성 출신이기 때문이다.



### 기다려지는 2023년

세상의 모든 축제는 신명나는 놀이와 함께 화합과 친목을 불러온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화성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화성시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영길 기자

## 탄요 축제 숯부작 경진대회 체험기

2022년 10월 29일(토요일) 오전12시 제6회 동탄 2동 탄요 축제를 솔빛 유치원 옆 동탄 중앙도서관(가칭) 부지에서 개최했다. 동탄 2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하였다. 공연, 체험 행사, 탄요 웹툰 공모전, 숯부작 경진대회 등 참여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축제는 여러 군데 다녀 봤지만 동에서 주최하는 마을 축제는 처음이다. 새롭고 가까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탄요는 숯가마를 뜯하고 동탄 2동에 숯가마 터가 있었고 탄요 유적공원도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사 온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탄요 축제를 계기로 알게 되었다.

일반지역 축제와는 다르게 내 집 주변 이웃들 스스로 자치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이기에 매우 뜻깊게 느껴졌다.



### 숯부작 경진대회 출품

숯부작 경진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고 참가비를 납부하면 재료를 준비해 준다고 하여 남편과 같이 사전 신청하여 단체전 작품을 제출하였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료를 받은 후 다육이와 이끼 등 소품을 구입하기 위해 쇼핑을 하였다.

남편과 같이 작품 스토리 구상, 재료 구입하고 협동하여 작품 제작한 경험이 오래되어서인지 힐링도 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숯으로 멋진 바위를 만들고 거기에 예쁜 다육이도 심고 하얀 돌로 폭포 물도 표현하면서 머리가 맑아짐을 느꼈다. 집에 두면 집안 가득 공기가 깨끗해질 것 같아 작품 제목을 청정지역으로 정했다.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만들고 있는데 관심 없던 아들 둘이 궁금해하며 이것저것 묻고 사진도 찍는다. 성인이 된 아들들과 대화가 줄었었는데 숯부작으로 인해 가족 간 짙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다.



### 축제 당일

미리 숯부작 작품을 출품하고 참석은 2시경에 했다. 입구부터 줄지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나바다 행사하는 걸 보니 옛 생각이 스치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플리마켓도 있었고, 솔빛 유치원 옆에는 푸드트럭도 있었다. 예쁜 그림 작품도 많이 전시되어 있어 한참을 감상하고 숯부작 작품 전시가 궁금해 바로 자리를 옮겼다.

창조적인 스토리와 뛰어난 작품이 많이 보여 감상도 하고 사진도 남겼다.

진행자의 멘트에 이끌려 가서 뮤지컬 중창과 디아이트 댄스 & 파워핏 공연을 관람했다. 동탄 2동 언니들의 댄스는 음악과 에너지가 넘쳐 나도 같이 몸을 움직여 춤추게 했다.

즐기고 있는 동안에 숯부작 경진 대회 장려상 입상 축하와 시상 안내 문자가 와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안내에 따라 주민자치회 회장으로부터 수상받을 때는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내년에도 있을 축제를 기대해 보고 더 많은 참여 활동을 생각해 보았다.

참여와 안내를 도와준 주민자치회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많은 분께서 분주히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축제 준비를 해 주신 모든 분께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옥구 기자



눈이 오면 미끄러운데, 서리까지 오니. 그 상황은 매우 위험한 지경이 된다.

어려운 일이 겪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꼭 이런 일을 겪게 된다. 기나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설상가상(雪上加霜)도 있지만, 금상첨화(錦上添花)도 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말자. 사물이나 사건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여기자.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드 라수코프’는 말했다. ‘인생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다’

윤보현 기자

## 사자성어 이야기

### 1) 설상가상(雪上加霜)&금상첨화(錦上添花)

설상가상이란 말은 중국 송나라 도원이 1,004년에 역대 부처와 조사들의 어록과 행적을 모은 불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서 나왔다.

원래 뜻은 '쓸데없는 참견이나 증복'이다.

그러나 그후 '엎진 데 겹친 격'이란 뜻으로 통용됐다.

한자 성어 설상가상(雪上加霜)을 직역하면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는 뜻이다.

# 사랑밭과 지역사회의 “지구도 우리도 건강 한 걸음 - 플로깅”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정신 재활시설 사랑밭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동체 생활과 사회 적응훈련을 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2022년 정신 재활시설 사랑밭에서는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인 ‘플로카업(plocka upp)’과 ‘조깅(jogging)’을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조깅하는 동안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이를 정신 재활시설 사랑밭에서는 자연의 친구라는 뜻의 ‘에코버디(eco buddy)’ 사업 중 한 가지로 하여 2021년부터 매월 2회씩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수원여자대학교와 2년간 함께하고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함께하고자 이번 2022년 11월에는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1월 2일에는 동탄 2동 자율방재단과 플로깅을 하였으며, 이어 4일과 18일에는 수원여자대학교와 함께 수원과 사랑밭을 오가며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진행된 플로깅 활동에는 사랑밭 회원 23명, 동탄 2동 자율방재단 10명,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자 16명이 함께 참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중 수원여자대학교 봉사자는 “에코버디 활동을 더 하고 싶다.”, “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여주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조금 더 말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용자분들과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후기를 남기도 하였다.

한편 정신 재활시설 사랑밭은 에코버디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어울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경산복지 재단 정신재활시설 사랑밭(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661-69)/ 031-376-5690 ●



## 동탄 2동 동네한바퀴

동탄 2동 “동네한바퀴”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가 9월 29일(목) 09:00시~ 10월 12일(수) 18:00, 14일간 진행되었다. 동탄 2동 체육 진흥회가 주최하고 삼성 소통협의회에서 후원을 하였다. 14일간 5곳의 미션 장소에 도착하면 장소와 본인 얼굴 인증 사진을 찍어 정해진 링크에 접수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동탄 2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운상과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했다. 코스는 ① 동탄 2동 행복센터 옆 정조대왕 동상 ② 노작 마을 하트 조형물 ③ 동탄 파라곤 타운하우스 옆 탄요지 ④ 탄요유적공원 굴뚝 조형물 ⑤ 10용사 육탄공원 조형물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면 된다.

동탄 2동의 명소와 풍물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과 소통의 차원에서 ‘동네 한 바퀴’를 기획하였다.

걷기대회 행사가 끝난 후 행운권과 경품 추첨을 10월 18일(화) 16시에 했다. 행복센터 3층 대강당에 내·외빈과 주민 등 약 50명이 모였다. 동탄 2동 박동균 동장은 500여 명 접수하여 소정의 목표를 이루었고 주민의 단합과 화합된 모습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사전 행사로 ‘한궁’ 대회를 했다. 참석자 모두 대회에 참가하였다.



‘한궁’은 양손 운동을 통해 좌우 평형성 유지와 집중력을 키워 주는 효과가 있으며, 한국의 투호와 국궁, 서양의 양궁과 달트의 장점을 IT 기술을 접목한 생활 체육이다.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5회씩 일정 기준선 앞에서 투구하며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우리나라 전통 종목이다.

행운상과 경품 추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주민들은 언제 내 이름이 호명되거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동탄 2동은 타동에 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주거복지, 문화, 체육 등 많은 주민 참여 행사를 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명품 동네를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동탄 2동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합니다!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동탄 2동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3월 1기 16명의 위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4기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화성시장이 위촉하며 동장, 통장, 지역아동센터장, 복지시설 직원, 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지역 내 복지 증진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01.18.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자원 발굴에 특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탄 2동에 개인과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한 사랑나무 나눔 릴레이는 그중 하나인데 동탄 2동 행정복지센터 입구로 들어서면 기부 사진이 가득 달린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동탄 2동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9월에 설치된 행복한 사랑나무는 현재 441번째 나눔 릴레이가 달성되었으며, 후원처와 후원 품목도 다양해져 동탄 2동의 즐거운 나눔문화 일상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탄2동 행복센터 입구에 설치된 행복한 사랑나무

2022.06.21. 나눔가게 현판 전달

또한 정기적으로 후원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후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나눔 가게를 인증하는 현판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6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총 7개 업체가 선정되어 나눔 가게 현판을 전달받아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원을 배분하는 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중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있다면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입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복지사업이 다르며 동탄 2동 특성에 맞게 스스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2022년 2월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3월에는 꿈이뤄드림 사업, 5월에는 감사드림 사업, 7월에는 복날 맞이 푸드박스 사업, 8월에는 이불 드림 사업, 9월에는 추석맞이 푸드박스 사업, 10월에는 핑크 박스 사업,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02.14.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믿질을 맞이하여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위해  
푸드박스 전달

2022.03.14. 꿈 이뤄드림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지원과  
청소년의 학교 강화를 위한 학연비 전달



2022.05.06. 감사드림 사업  
어버이님을 맞이하여 어르신의 안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물 박스 전달

2022.07.15. 복날 맞이 푸드박스 사업  
꼭 열기 어르신의 위기 상황을 살피고  
건강증진을 위해 푸드 박스 전달



2022.08.16. 이불드림 사업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경기여 머신 부부에게  
건강 및 위생을 위해 칭구류 제공



2022.09.08. 추석맞이 푸드박스 사업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추락계층에  
푸드박스를 전달해 심리적 지원을 제공



2022.10.18. 핑크박스 사업  
여성·청소년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핑크박스(여성용품) 전달



2022.12.20.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사업  
관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 45명 전달  
크리스마스 맞춤형 선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거리 캠페인과 탄요 축제에 홍보 부스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해 안내지와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통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본인이 어려우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2022.09.20. 복지사각지대 발굴 거리 홍보  
상가 및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단지 배포



2022.10.29. 탄요축제복지 사각지대 홍보  
시호동체 흥보관 부스 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홍보

민관협력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새강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주변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독거노인 어르신의 집을 청소하고 도배 장판을 다시 해 주어 어르신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08.08.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내 둘째아역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서는 필요하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를 위해 노력과 헌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사랑나무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키워요.  
행복한 사랑나무 나눔 릴레이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후원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조복형 위원장

후원 문의 031) 5189-4855

※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운영되며  
온전히 동탄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 수행에만 쓰입니다.

# 제2 인생을 위한 기회가 온다.

**2022 2학기**  
**화성 중장년 행복캠퍼스**  
**제2인생 출발의 디딤돌**

**신청방법**

전화문의  
031-299-0711, 0712, 1443  
이메일신청  
hs\_happycam@naver.com  
QR코드 스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 작성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중장년  
 (만 50세 ~ 만 64세)  
 1순위 화성시민 / 2순위 경기도민

**모집기간**  
 2022년 8월 3일~8월 29일

**장소**  
 화성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강의실 및 전통공간

**커뮤니티 & 사회공헌**  
 개인나눔  
 홀몸어르신이나 혼자 살고 있는 청년에게  
 전달  
 사회  
 화성시  
 화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 프로그램**

중년의 출발   중장년 창업지도사	2022. 9. 5-11. 21 월 수 19:00-22:00
중년의 출발   치유여행지도사 양성과정	2022. 9. 8-11. 17 목 14:00-16:00
중년의 의미   치유여행지도사 양성과정	2022. 9. 13-11. 17 화 목 14:00-17:00
중년의 의미   문화강사 양성과정	2022. 9. 14-11. 16 수 10:00-17:00
중년의 출발   중장년 Re-II아란	2022. 9. 16-11. 28 월 금 13:00-16:00

\* 수강료 - 무료(자작용비전형료 별도)

**공통과정**  
 필수과정  
 특1과정  
 ○ 인식전환  
 ○ 대처방식  
 ○ 문화 노후(여우) 설계  
 ○ 금융제작(금융 어려움 해결방법)  
 ○ 조선 왕실이 역사 궁금한 수수께끼를 풀다  
 ○ 해설가로써 추억여행  
 ○ 블디간도 부종산 가서 놀아라

제2 인생을 꿈꾸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들어보았다. 2022년 2학기 화성 중장년 행복 캠퍼스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03일~29일 모집했다.

경기도 거주 만50세~만64세 (화성시 거주자 우선) 중장년에게 제2 인생 출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민간자격증 취득과 함께 5개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한다.

(중장년)창업지도사, 치매 예방라이프코치 양성과정, 치유 여행지도사 양성과정, 문해 강사 양성과정, 중장년 Re-II아란. 과정별 20명을 정원으로 총 100명이 참여한다. 그중에서 창업지도사 과정은 오후 19시~22시까지 1주일에 월, 수 2번 야간 수업이다. 수강생들은 개인 사업자와 직장인 그리고 예비창업자들이었다. 모두 한결같이 제2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중장년의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었다. 창업지도사 2급 민간자격증도 받을 수 있어 더 알찬 과정이다.

올해(2022년)는 11월 21일(월) 창업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있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강한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다. 합격과 함께 자격증과 수료증을 받으니 더없이 뿌듯했다.

창업지도사 과정 중에 동아리 모임을 결성하여 수업 이외의 활동을 하며 다른 학우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여러분도 나에게 유익한 과정이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하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를 수 있다. 또한, 경기도나 화성시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아는 것이 힘이다” 특히 중장년 여러분은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중장년에게 “제2인생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김영길 기자



## 붕어빵

반송 초등학교 3학년 김다은

맛있는 붕어빵  
 겨울에 먹으면,  
 백배 맛있고 뜨끈뜨끈 붕어빵  
 팥, 슈크림은 보너스네  
 기분 좋아 웃음이 빵 나서 붕어빵  
 진짜 붕어는 어딨을까?



## 첫 눈

반송 초등학교 2학년 성지훈

나는 첫눈이 오면 기분이 좋다.  
 찹쌀떡 같은 첫눈  
 밟으면 뾰드득  
 내 마음이 첫눈처럼 하얗게 물든다.  
 그래서 나는 첫눈이 좋다.  
 나도 첫눈처럼 되고 싶다.  
 나는 첫눈이 오면 기분이 좋다.



# 반석산 장군바위, 노작의 '설움' 가득한 '왕의 눈물'



인간의 욕망에 걸어차여 반석산 인적 없는 산기슭에 던져진 청동기시대 고인돌 장군바위. 이 바위는 정한수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마을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던 시절을 뒤로 한 채, 이제는 반석산 수풀 속에서 외면당한 서러운 가슴을 달래고 있다. (화살표-노작로1길 20-7, 반송동 124-9대 뒤편)

더구나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바위가 노작 흥사용의 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동탄1신도시 조성에 앞서 원주민 면접 조사를 통해 작성한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샛강이(현 노작마을) 마을 주민들은 이 고인돌을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는 장군바위는 원래 마을 안에 있었으나, 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사업시행자(DH로 추측)의 요청으로 공원부지(반석산)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

동탄1신도시 조성으로 마을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택지 조성 사업으로 장군바위는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고인돌로서의 문화재 가치를 잃었다. 하지만, 장군바위는 우리 마을에 살던 청동기인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받으며 면면히 3~4천년 마을의 역사를 간직해온 마을의 소중한 유물이다.

이제 수풀에 방치된 장군바위를 밟고 인적 찾은 소공원으로 옮겨 마을의 정체성에 답하는 상징물로 드러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

노작의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와 동인지 '백조' 창간 100년을 맞았다. 마을의 오랜 유물, 노작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를 넘어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고 아파하던 노작의 겨레 사랑을 기리는 지표로 삼았으면 한다.

## 왜 '뒷동산 장군바위'인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중략〉

누우런 떡갈나무 우거진 산길로 허물어진 봉화둑 앞으로 쫓긴 이의 노래를 부르며 어슬렁거릴 때에 바위 밑에 돌부처는 모른 체하며 감중련하고 앉았더이다.

아아, 뒷동산 장군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뜬구름은 얼마나 많이 왕의 눈물을 싣고 갔는지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설움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白湖 (백조)』 3호, 1923년 9월)

노작이 화성 동탄에 산 기간은 10년 안팎이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물분과 무기력에 잠긴 아버지를 지켜봤던 노작과 멱실, 뒷동산 주봉뫼(반석산)는 한없는 눈물을 받아주고 다독이는 할머니의 품이었고 문학의 세계로 이끈 시공간 우주였다.

그래서 인지 노작은 본인의 시와 수필 등 여러 작품에서 주변의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며 자전적 체험에 기반한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시 「나는 왕이로소이다」에 나오는 맨재팀이, 옹달우물, 봉화둑, 장군바위 등이 그것이다. 3,4) 「뒷동산 장군바위」로 표기한 것은 본인이 직접 보고 만지며 느꼈던 뒷동산 장군바위에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이다.

생긴 모습을 따라 사자바위, 거북바위로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 짓기로 볼 때, 장군바위 하면 사람을 암도하는 우람한 위용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장군바위는 이런 이름 불이기와 달리 「필봉산에서 장군이 던진 바위」에서 그 이름이 왔으므로 씩씩하거나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돌팔매질 하기에 좋은 계란 모양이다. 5)

노작이 시를 지을 때 독자에게 의미를 곧바로 전달할 요량이었다면 장군바위라 하지 않고 '눈물바위', '망부석' 등 눈물과 연관 있는 시어를 썼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둥근 모양을 한 장군바위를 보아 온 노작의 눈에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닌, 늘 마음속에서 울렁거리는 서러운 눈물로 보였을 것이다.

눈물방울을 닦은 뒷동산 장군바위, 서러운 '눈물의 왕' 노작의 마음이 고스란히 투영된 '왕의 눈물'이다.

1)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공사, 2001**

42쪽, (12) 유물산포지 12, 75~76쪽(사진 29~31), 161쪽, 263쪽(사진 173, 174)

2)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공사, 2007**

138쪽, 10, 11~13지점(지도 11, 도면 59, 사진 65)

3) **문화의 끝, 통권61호, 화성문화원, 2009**

59쪽, 노작 흥사용의 인간과 문학, 홍신선,

4) [문학관TV]화성 노작흥사용문화관 흥사용 시비(詩碑) 그리고 반석산공원이었던 '노작공원'에 얹힌 스토리

5)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3 안성천 Vol2 문화유적(1), 경기도박물관, 2003

246쪽, 70 반송리 새괭이 마을 지석묘

노작마을 염기동

## 연재 : 꽃과 나무 이야기

### 2) 겨울꽃: 동백

동백나무는 동백이라고 한다. 제주도와 울릉도, 대청동와 백령도 등의 섬과 남부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우리나라 토착식물이다. 다른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린 한 겨울에 동백나무는 빨간 꽃봉오리를 하나 둘 부풀리며 아름답게 피어난다.

동백꽃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인묵객의 작품에도 많이 남아있다. 우리의 레전드 국민가수 이미자는 '동백아가씨'로, 조용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서'로 동백을 노래하며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동백은 누가 뭐라해도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국민 동백'이다. 별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꽃망울을 남몰래 키워가며, 여름 나고 가을 나며 커진 꽃망울을 부풀리며 묵묵히 겨울을 맞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무수히 피어 나는 꽃들이 다 지고 나면, 추위를 즐기며 천연히 홀로 피어난다. 천하를 평정한 대장군처럼, 모든 꽃들을 잠재우고, 고고하고 고결하게 피어난다. 동백꽃에 관한 설화가 있다. 옛날 여수 오동도에 귀양을 가서 살던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고기 잡이를 나간 사이 도둑이 들어 아내의 몸을 요구했다.

아내는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남편이 돌아와 아내의 시신을 거두어 산에 묻었다. 겨울이 되자 눈속에서 붉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이 꽃이 바로 동백꽃인데, 그후 섬 전체로 퍼졌다. 그래서 동백꽃은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닮았다 하여 여심화(女心花)라고도 부른다. 옛날에는 동백나무의 씨에서 기름을 짜서 등잔불도 켜고, 머리에 바르거나 약으로도 썼다. 새들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꽃을 파워 달콤한 꿀을 실컷 먹게 해 준다.



한 겨울에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친구라 하여 '세한지우'라고 부른다. 꽃말도 참 많다. '청렴과 절조', '진실한 사랑', '고결한 사랑' 등등. 고결함과 조촐함이 매화보다 낫다는 사람들도 많다. 꽃은 질 때도 가장 아름다울 때 진다. 다른 꽃들처럼 시들어서 추한 모습으로 지지 않고 싱싱한 모습 그대로 툭 떨어져 진다. 꽃잎 한 장 흘어지지 않고 통째로 뚝뚝 떨어진다. 무사의 목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춘수락'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사업가에겐 선물하지 않는다. 피타코드는 《꽃의 문학사》에서 "동백은 향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했다.

겨울에서 봄사이에 편다 하여 '동백(冬柏)'이라고 부른다. 꽃말도 참 많다. '청렴과 절조', '진실한 사랑', '고결한 사랑' 등등. 고결함과 조촐함이 매화보다 낫다는 사람들도 많다. 동백은 우리에게 열정과 희망과 위로와 평화를 주는 꽃이다.

동백은 나무가지에서도 피고, 질 때도 싱싱한 자태로 땅에 떨어져서도 한참을 피어 있다.

그러서 사람들은 동백은 두 번 편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세번 편다고 생각한다.

내 마음 속에서도 피어나니까.

윤보현 기자

##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건강검진



▲ 동탄 탑 내과 대표원장 \_내과 전문의 김경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부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 보면 참 재미있다. 서로 어디 어디 아픈 거 자랑한다. 남편이 팔이 아프다고 하면 아내는 손이 아프다고 하고 남편이 잠을 푸 못 잔다고 하면 아내는 갱년기라 힘들다고 한다. 또 주변 지인의 질병 진단 소식을 전하며 걱정을 나누기도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삶의 영위는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보내는 나쁜 신호를 알아내야 한다. 내 몸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건강 행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건강 행위가 습관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 나루마을에 동탄 탑 내과가 문을 열었다. ‘주민에 동화된 우리 동네 주치의’를 개원 철학으로 환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이승재 대표원장을 만나 건강검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발병 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을 지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증 없는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획일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 중심의 개인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검진제도가 빛을 발하려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가능성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리가 중요하며 섬세한 사후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 내시경 검사는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1번씩 받아야 한다. 사실 바쁜 일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내시경의 최대 고민, 수면내시경 vs 비수면 내시경  
수면내시경의 장점은 편안함이다. 수면마취 시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검사가 끝나 있다. 프로포폴은 약물 중독 문제로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일 년에 한두

번 하는 검진으로는 약물 중독이 되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기억이 없어질 수 있지만 기억력 감퇴나 치매 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환자가 편안하게 자면서 검사받을 수 있으니 큰 장점이 있다.

비수면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마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가 빨리 끝나고 보호자 없이 혼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시경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동탄 탑 내과 김경국 원장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환자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받고 싶어 한다. 환자의 편의성을 염두에 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환자들의 편안한 회복을 돋는 쾌적한 회복실을 갖춘 내시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민한 편이라면 수면내시경을 권장한다. 입을 지나 식도로 내시경이 들어가는 느낌이 힘들 수 있다. 긴장하다가 목에 힘을 주게 되면 검사 후 목이 붓게 된다. 수면과 비수면 내시경의 차이를 고려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건강한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나에게 건강한 삶이란?’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 몸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나쁜 생활 습관 등이 우리 몸을 해친다. 병들지 않는 건강한 삶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병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겠다. 건강한 수명연장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초석임이 분명하다.

동탄 2동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 동네 주치의를 자처하는 동탄 탑 내과 원장님들을 만나게 되어 좋은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초고해상도의 최고 사양의 내시경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안전하고 정밀하게 미세한 병변도 놓치지 않고 진단하겠다는 동탄 탑 내과 두 대표원장의 진심이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정희영 기자

### 좋은글 나누기

##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

이용희 기자

“오늘 저녁은 뭐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엄마이고 아내이니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건 이제 희망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 혼자만의 일정과 시간을 가지며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아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건 사치일까요?

오늘의 나를 바꾸어 나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드는 힘~!!

나다운 나 찾기를 위해 아래 좋은 글 한마디 나누어 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내가 아직 해 보기 전에는

그 어떤 일이라 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망설임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 무엇인가를 하기로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하면 될 테니까요.

과거의 기억, 타고난 성격,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나를 바꾸어 나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드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지나간 나의 과거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인 거 같아요.

삶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시미 이치로)’ 中

# 주민들이 오랫동안 아끼고 가꾸었던 도서관, 다시 빛나기 시작

##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 재오픈 이야기 (Q&A)

인터뷰 : 새강마을 도서관 커뮤니티 매니저 김경미

도서관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2010년 8월에 개관하여 단지 내 봉사자들로 도서관을 운영해오다가 코로나로 2020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LH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오픈하여 기존의 도서관 대출업무를 하고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단지 내 도서관 역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LH의 지원으로 커뮤니티 매니저가 상근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회원등록을 하면 1인 3권을 일주일 동안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새강마을 도서관 역할변화의 계기는?

리모델링 하며 재개관을 하게 되었지만, 이용자는 아직 코로나 전 수준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LH와 작은 도서관협회의 지원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 홍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게 되면서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도서관이 단지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프로그램은?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은 커뮤니티 매니저와 봉사자분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올해 아동 프로그램으로는 클레이, 종이 접기, 문해력 책 읽기, 아동 요리, 푸드테라피, 풍경 만들기, 연필꽂이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인 프로그램으로는 핸드폰으로 하는 동영상 편집, 뜨개질, 캘리그라피를 했습니다. 아이들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이라 아동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샌드위치 만들기를 했을 때는 정말 신청 문의가 많았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이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하시며 다음에도 프로그램을 언제 하냐고 문의해 주셨을 때, 또 마을 인터넷카페에 후기를 올려주시고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이 너무 좋다면서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운영담당자로서 앞으로 새강마을 도서관 운영의 방향?

아직도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홍보하여 많은 연령층, 다양한 니즈를 가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은 약 8,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본질인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경미 기자



▲ 2010년 도서관 개관식/ 리모델링 전 도서관 모습



▲ 2022년 재오픈 후 활동 모습/다양한 홍보내용



## 우리동네 산책길 - 육탄10용사공원 산책길

도보로 10분정도 되는 거리는

누가 또는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 시간과 거리가 다르게 느껴진다.

하원하는 아이와 엄마에게는 아장아장아이걸음으로 걷기에 딱 좋은 거리로, 이른 새벽.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심아느린 걸음으로 한바퀴 돌고 오기 딱 좋은 거리로, 상쾌한 공기와 계절을 느끼며 산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부담없는 거리로...

새강마을단지 옆에는 육탄10용사 공원을 중심으로 약 800m정도 되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벌써 조성 된지 10여년이 되어서 그런지 이런 저런 화목들도 계절별로 그 위용을 자랑하느라 난리법석이다. 또 밤에는 그리 밝지 않은 조명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낮에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나무와 꽃, 조형물들이 산책길을 더 다채롭게 만든다. 현관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왔다갔다 하는 도시인의 일상에 작은 산책로가 주는 기쁨은 또 하나의 위안과 평화를 준다. 코로나로 집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 산책길로 2년간 유치원 등·하원을 하면서 아이와 나는 사계절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또 소나기가 내리는 어느 날은 아이에게 땅 내음이 뭔지도 알려줄 수도 있었다. 우리 아이와나, 그리고 홀로 커피 한잔과 함께 하며 산책할 수 있었던 그 길과 나무 벤치가 내겐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런 장소가 우리 동네 곳곳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년전 짧게 메모해 둔 글과 몇 해에 걸쳐 촬영한 산책길 사진풍경을 담으며 육탄10용사 산책길 이야기를 마친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나뭇잎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등원 길에 5살 둘째에게 “엄마 기분이 좀 쓸쓸하다” 그랬더니 둘째왈 “엄마! 비가 와서 그래요” 란다. “그래? 주하는 쓸쓸한 게 뭔지 알아?”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면서 “길 잊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길은 주하랑 날마다 유치원 다니는 길이니 내가 잘 기억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란다. 그리곤 강아지풀을 쥐어 주고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웃어준다.

2016년 11월 어느날

전경미 기자

# 화성시의 비전과 정책 현안을 말하다

## 경기도 의원 박세원

### 1.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 동탄 출신 경기도 의원 박세원입니다. 제10대에 이어 제11대에도 경기도민과 화성시민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결산 심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을 맡아 78 대 78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광역의원 도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화성동탄1신도시아파트 입주자연합회 활동을 통해 지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분양 후 설립 예정이던 학교 신설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학교 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합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입주민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직접 전수조사까지 해가며 취소되었던 학교 설립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원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 감각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정치 입문을 권유받아 경기도 의원으로 출마했고, 유권자분들의 선택으로 도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경기도의 현재 주요 현안과 화성시의 현안이 무엇인가요?



(경기도 현안)

현안은 예산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2023년 본예산의 주요 사업들이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중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버린 취업 시장이 지금까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주거, 결혼 및 육아 등 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청년 기본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청년 면접 수당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진학과 학업, 취업 준비 등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사업인 '청년

갭이어(gap-year)',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어학교육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 결정에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11월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예산심의나 청년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화성시 현안)

화성시의 중요한 지역 현안은 중단된 인덕원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2021년 착공되었으나 이번 정부에서 중단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솔빛나루역 유치도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솔빛나루 마을은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빛나루역 유치는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부족한 기반시설들의 완공, 지역 축제 유치 등 문화인프라 구축, 고교 평준화를 통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주요 활동이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78 대 78 초유의 여야 동수 의회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2023년 본예산이 무사히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 부위원장 및 당 정무수석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해 낸 것이 최근에 이루었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패를 수상한 것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10대 경기도 의원 당시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걸상 교체, 에어컨·공기청정기 설치·교체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고자 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화성의 소방 대응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소방본부와 꾸준히 소통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화성동부 소방서' 신설 사업이 확정되었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추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계획대로 소방서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현재는 화성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김포공항행 공항버스 노선 신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5. 동탄 2동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인 솔빛나루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의정 활동에서 솔빛나루역 유치를 최선의 과제로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2022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도 도민 분들과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승 기자

## 친구야 \*\*\* 학교 가자

지난 11월 30일 수요일 반송초등학교 학부모회는 학생자치회와 함께 「친구야 자전거 타고 학교 가자」라는 내용으로 학교 후문에서 캠페인 활동을 주관하였다. 갑자기 찾아온 온한파에도 많은 학부모가 참석해주었다.

학교에 등교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굣길 자전거 타기는 가능한지 양 하도록 하는 게 캠페인의 목적이었다.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해야 한다면 안전하게 타고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화성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 와 알콩이도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친구야!! 걸어서 학교 가자’ 캠페인은 절대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운동의 장려책일 뿐만 아니라 본교 학생들이 후문 쪽으로 등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통학길에 캠페인 활동을 지켜본 반송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걷기운동 캠페인에

동참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6학년 학생은 ‘친구들이 솔선수범하여 캠페인 운동을 하는 걸 보니 자전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겠다’ 라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반송초등학교에서는 “다름을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굣길에서 봉사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은덕 기자

## 녹색 봉사를 하면서

첫날 봉사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한 아이가 혼자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미 다른 아이들이 떼를 지어 지나가고 난 후, 등교시간이 훨씬 지나 덩그러니 혼자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는 저학년 아이에게 나의 오지랖은 발동했다.

늦게 오면 혼자 건너야 할 상황이 생겨서 위험하니 내일부터는 좀 일찍 나오라고 했다. 아이는 낯선 노란 조끼 아주머니의 무심한 충고를 간단한 고갯짓으로 딛하고 빠르게 지나쳤다.

다음날 유난히 수많은 아이들이 떼를 지어 건너가는 상황. 횡단보도의 중간을 넘어서도 끝까지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는 아이가 있었다. 본능적으로 어제의 그 아이임을 알았다. 흰 피부에 순한 인상을 풍기던 그 아이는 짧은 순간이지만 확실히 어제 나의 충고에 부응했음을,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켰노라 확인시켜주고 싶었으리라.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그 찰나의 순간에도 빠른 상황 판단을 하며 긍정의 리액션을 보낼 수 있다. 아이의 순수하고 집요한 눈길에 미세한 끄덕임과 옅은 미소로 답해주었다.

이제 그 아이와 나는 첨보영화와 같은 암호를 교환한 사이가 되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한 듯 또 하나의 인연이 맺어졌다.

전경미 기자



## 화성시 정보 &amp; 소식

**시민안전보험**

국내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한다요.

### 2022 화성시의 시민안전보험!

화성인에게 진심인  
화성시의 진심이다요!

사고점수 및 분석문의

- 경구사유 발생 시 삼기 공통서류 및 지금사유를 필요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택스 및 전자 우편으로 통보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국민정보처리증에서 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번호 1661-4326 | 택스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화성시 시민안전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 2023년 1월 연납신청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할인**해 드립니다.  
알뜰한 동탄 2동 주민이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  
2023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하면  
6.4% 할인받을 수 있다.

■ 문의 : 동탄 출장소 031-5189-6019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3년 1월에 면납신청으로  
자동차세 할인받으세요!



####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2022.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부기간

2022.12.16.~12.31.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ARS(1899-4899),  
은행(CD/ATM)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납부

##### 신고납부 시기 및 혜택

신고납부 시기	공제 혜택
1월(1.16~1.31)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3.16~3.31)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6.16~6.30)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9.16~9.30)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1.75% 세액공제

##### 신청 및 납부방법

인터넷(공동인증서 소지) 이용  
위택스(<https://www.wetax.go.kr>)접속 신고 및 납부

#### 전자고지 서비스 안내

##### 간편결제앱

NAVER 네이버페이

pay 카카오페이

##### PAYCO

##### 금융 앱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MG 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BNK 부산은행

BNI 경남은행

금융결제원

DGB 대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K bank

서비스 대상/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이용 방법 금융기관 앱 또는 간편결제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청구서) 신청 납부 가능

이용 혜택 전자 송달 신청시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1,600원 세액공제(고지서 1장당)(단, 등록면허세 250원, 500원)



화성시청 콜센터 1577-4200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5189-4094

화성시청 세정1과 031-5189-1769, 3784

동탄출장소 세무과 031-5189-5616

## 인천 공항버스 (8837) 운행

시행일 : 11월 1일

순	동탄역	라마다호텔	선라호텔	다은마을	능동마을	병점 중심상가	안전공항 청구(우)	인천공항 (T2)	인천공항 (T2)	안전공항 청구(우)
1	4:00	4:10	4:12	4:15	4:20	4:25	5:30	5:50	6:50	7:10
2	5:15	5:25	5:27	5:30	5:35	5:40	6:55	7:15	8:35	8:55
3	6:30	6:40	6:42	6:45	6:50	6:55	8:10	8:30	10:05	10:25
4	7:50	8:00	8:02	8:10	8:15	8:20	9:30	9:50	11:45	12:05
5	9:30	9:40	9:42	9:45	9:50	9:55	11:10	11:30	13:20	13:40
6	11:10	11:20	11:22	11:25	11:30	11:35	12:50	13:10	14:50	15:10
7	12:50	13:00	13:02	13:05	13:10	13:15	14:30	14:50	16:35	16:55
8	14:40	14:50	14:52	14:55	15:00	15:05	16:20	16:40	18:15	18:35
9	16:30	16:40	16:42	16:45	16:50	16:55	18:10	18:30	19:45	20:05
10	18:15	18:25	18:27	18:30	18:35	18:40	19:55	20:15	21:20	21:40

#### 동탄역(8837) 운임표

동탄역	라마다호텔 신라호텔	메타폴리스	능동마을	병점 대안
한반	15,400	14,600	14,300	13,900
청소년	10,780	10,220	10,010	9,730
예한여	7,700	7,300	7,150	6,950

\*\* 도로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표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날씨 시간 최소 3~6분 전에 대기하시면 좋습니다. \*\*

\*\* 목적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 공항버스 인천행 리무진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었는데 지금은 1시간 15분 ~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다른마을 메타폴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만차로 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자차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가 지금은 규제가 완화되어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리무진 운행은 수요를 의식하지 않고 구태의연하다. 이러한 추세에도 공항버스 관계자에 의하면 "용남고속과 우남고속이 번갈아 가며 운행을 해왔으나 용남고속이 수입금 감소로 운행이 중단되고 우남고속만 운행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처럼 운행되기를 바란다."

## 신규 김포공항버스 (8840)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 많이 힘드셨죠?

동탄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2월 1일부터 신규 개통된다.



■ 개통일 : 2023년 2월 1일(수)

■ 노선도 :

동탄2고지 - 호수부영3차 - 동탄역  
- 라마다호텔 - 다른마을 - 예당마을  
- 김포공항

■ 운행횟수 : 1일 5회

■ 문의처 : 대원고속 (031-374-3407)

오금희 기자

##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 어떤 책을 읽을까?

### 『나는 그때 왜 비겁했을까?』 | 이벤 아케를리

대상 : 청소년, 학부모



우리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나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수치심을 감당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며 차츰 단단해지지요. 또한 책 속에 나오는 어른들도 아이의 일에 관여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기를 권하고 싶어요. 성숙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가 무얼까 생각해보게 된답니다.

### 『책만 보는 바보』 | 안소영

대상 : 청소년, 학부모



이 책은 조선 실학자 이덕무의 「간서치」를 바탕으로 안소영이라는 작가의 상상력이 더 해져서 재창조된 이야기입니다.

글쓴이의 표현에 의하면 이덕무의 「간서치」를 문살로 반듯하게 짜고, 그 뒤에 은은하게 창호지를 덧대어 바람과 마음이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듯하게'라는 표현은 아마도 최대한 왜곡이나 과장 없이 사실적으로 가져왔다는 의미인듯합니다. 또한 '은은한 창호지'는 유리창과는 다르게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적

미학이 더해졌다는 뜻이겠지요? 1700년대, 조선 지식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을까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이 있는 풍경, 기다림이 있는 미학을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또한 유득공이 〈발해고〉를 썼다거나 정조가 규장각과 장용영을 설치하였다며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역사를 알아가는 지적인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답니다. 눈 오는 날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 기운도 신선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겨울 독서는 이불 고옥 덮고 얼굴만 쑥 내밀어 책 읽는 감성과 재미가 있어요. 기나긴 겨울밤, 책과 함께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지원 기자

### 청소년의 맞춤교육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사춘기 또한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사춘기는 감정에 잘 휘둘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억누를 때 어려움과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한다. 특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 제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학업 스트레스이다. 학창 시절에는 개개인마다 다른 개성과 능력들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단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방식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을 주지 않는다. 친한 친구들과도 서로에게 매겨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나뉘게 된다. 그럴수록 서로 누가 더 성적이 좋나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락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교육이라는 개념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청소년에겐 메이크업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 것이 교육이 될 수 있고 꿈이 축구 선수인 청소년에겐 공을 차고 드리블을 하는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단일화된 인문계 교육만이 아닌 그들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찾아가면서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김규리 청소년기자



### 흘러간 낙서 (HUMOR)

#### <들켰구나!>

**선생 :** 개똥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합니다.

**학부형 :** 선생님도 제가 보기엔 실력은 좋은데  
열성 없이 가르치네요.

[주간한국 제336호]에서

윤이나 (낙서작가 : '토월'동인/한국웃음문화연대 회원)

#### \* 리뷰로그 \*

열성 없는 무능한 선생이 많은 듯한 세태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처음 투고한 작품이 입선하여 낙서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토월' 동인으로 낙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윤보현 기자





### 동탄2동 소식지 기자단 모집

■ 대상 : 청소년/일반 ■ 인원 : 충원시까지 ■ 문의 : 031-5189-4756  
**“도전은 아름답다!”**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